

아버지역할과 자녀양육에 관한 연구동향 (I)

- 미국 · 일본을 중심으로 -

The current trend in the studies of the Role of the Father

- Analysis on America and Japan -

가톨릭대학교 생활과학부 아동학
강사 강란혜

School of Human Ecology, Catholic University

Lecturer : Kang, Ran Hye

● 목 차 ●

I. 아버지 연구가 활발하게 된 배경
II. 아버지 연구의 동향

III. 아버지 연구의 문제의식 및 과제
참고문헌

<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document the trend in studies on the role of the father. A large number of studies on parent-child relationships have been focused on the nature of mother-child relationships.

Since the 1970s, the role of the father has become an increasingly popular topic in the U.S and Japan. Why has the father's role been forgotten for such a long time? Why is the father's role being rediscovered in recent years? Does the father have significant impact on child's development? This paper reviews these issues in terms of sociocultural background, trends, and future implications of the studies.

A comparison and determinants analysis regarding the extent of father-child interaction, of the father's behavior, and its effects on the child in the U.S and Japan is provided.

어느 학문분야의 최근 연구동향을 살펴보고자 할 때, 그 범위를 정하는 것은 임의적일 수밖에 없다. 미국의 아버지연구는 범위가 워낙 넓기 때문에 본 고에서는 기술의 편의상 1995년도 Parke가 편집한 Handbook of Child Psychology와 1997년도 Lamb의

The Role of the Father in Child Development 에 수록된 논문들을 참고로 하고, 일본의 경우는 柏木惠子(가시와기 게이보)의 「아동발달과 아버지의 역할」에 수록된 논문과 관련저서들을 참고하여 최근 연구의 주된 흐름을 기술해 보려고 했다.

I. 아버지 연구가 활발하게 된 배경

미국과 일본에서 아버지 연구가 활발하게 되고, 아버지 역할과 아버지 상(像)이 일반인에게 알려지게 된 배경은 복잡하지만 공통적으로 몇 가지 중요한 요인을 생각할 수 있다. 각 나라의 가족, 부부관계, 그리고 아버지 역할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첫째, 여성 취업률의 증가이다.

1970년대 미국의 어머니들의 취업률은 50%정도지만, 1990년대는 75%까지 증가했다. 이 증가는 특히, 영유아나 아동을 가진 어머니의 종일제 취업률이 현저하다. 특히, 1976년의 노동조사에 의하면 영유아를 가진 어머니의 31%가 직업을 갖고 있지만, 그 수는 1990년에는 50%이상 증가하고 있다. 이것은 일본이나 한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1997년 현재 일본여성의 노동력율은 50.4%에 달하고 있다. 연령별로 보면 직업을 갖고 있는 비율은 어느 연령단계에서도 증가하고 있고 출산·자녀양육기에는 감소하고 있다. 말하자면 'M자형 곡선'은 전체적으로 상향으로 이동함과 동시에 우측이 서서히 내려오고 있다. 부부 맞벌이 가정은 1984년 이래 차츰 증가하고 있다.

취업여성의 증가와 함께 가족학 연구자간에 미국의 남성은 육아나 가사에 더욱 참여해서 가정 내 지지 시스템을 만들어 가야만 한다는 생각이 확산되었다. 말하자면 「New Fatherhood」의 이미지에 기여했던 것이다(石井クツツ, 1997; LaRossa, 1988; Parke and Tinsley, 1984).

이와 같은 기혼여성의 취업증가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양육행동에 소비하는 시간은 그다지 증가하고 있지 않다. 여성은 직업을 갖고도 변함없이 종래의 가사·양육을 주로 담당하는 역할이 기대되고 다중역할은 지금까지 해왔던 것 이상으로 부담이 증가하게 되었다(小泉, 1998). 미국에 있어서도 1955년부터 1975년까지의 남성의 가사·양육참가 시간을 조사한 Coveman & Sheley(1986)는 취업하고 있는 부인의 배우자의 가사 양육시간은 거의 변화하지 않고 어린 자녀를 갖고 있는 아버지의 양육시간만이 증가했다고 보고하고 있다. 어머니의 직업유무에 관계없이 아동의 양육책임은 어머니에게 있다

라는 생각을 반영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 중에서 남성은 더욱 가사나 양육에 참가해서 가정 내 지지 시스템을 만들어가야만 한다는 소리가 있는 등 가정 내에서나 부부간의 역할에 대한 의식에도 변화가 보여지고 있다. 가정 내 지지 시스템을 만들어 주는 하나의 수단은 가사의 역할을 공평하게 가족 안에서 혹은 부부간에 분담한다는 것이다. 실제, 1980년대 전후의 연구에서는 가사를 하지 않는 남편을 가진 맞벌이 부부의 부인은 스트레스가 많고 정신위생의 면에서도 좋지 않다는 보고가 있다(kessler & McRae, 1982; Ross, Mirowsky & Huber, 1983). 이러한 문제를 포함해서 가족사회학, 혹은 gender-사회학에서 남성의 가사참여에 관한 연구가 증가했던 것도 1980년대부터 1990년대 전 후반에 걸쳐서이다(Barnett & Baruch, 1986; Coltrane & Ishii-Kuntz, 1992; Fenstermaker-Berk, 1985; Ishii-Kuntz & Coltrane, 1992a, 1992b; Robinson, 1988; Thompson & Walker, 1989). 게다가 남성의 가사와 양육참여와는 상관관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Ishii-Kuntz & Coltrane, 1992b). 이와 같은 여성의 취업이 증가하고 부부간의 역할이 변화하면서 자녀 양육 및 교육에 미치는 부모 공동의 책임이 증가하였으며, 부모가 자녀의 문제를 공동관심사로 공유하는 현상(Mckee & O'Brien, 1981)이 아버지 연구를 촉진시켰다.

둘째, Feminist이론의 영향이다. 1975년부터 국제여성의 해를 계기로 체계적 규모의 여성운동이 전통적인 남녀의 역할에 관해서 재검토를 제기 했던 것이 사람들의 의식혁명에 큰 영향을 미쳤다. Feminist 연구자의 대부분은 여성이 가사나 양육을 무상으로 짊어지고 있는 것이 여성차별을 하는 것 중의 하나라는 사고방식을 하고 있다. 부부간의 조화가 아닌 가사나 자녀양육 등을 부부간에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는 Feminist이론이 아버지 연구의 증가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Ferree, 1991; Haas, 1992; Peterson & Gerson, 1992; Thompson & Walker, 1989). 한편, 일본에서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특히 가사나 자녀양육 등을 남녀에게 공평하게 분담함으로써 부부간의 평등관계가 생긴다는 Feminist

이론이 아버지 연구의 증가에 크게 영향하고 있는 것이다(柏木·高橋, 1995). 미국과 달리 일본에서는 오랫동안 아버지를 잊혀져왔던 것에 대해 柏木(1996)은 프로이드나 보울비등의 발달이론의 영향과, 사상적 역사적 배경 즉 모성, 모자관계가 강해 「아동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어머니이고 아버지는 어머니만큼 중요하지 않다」라는 가정(假定)은 단순히 가정(假定)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는 현실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장시간 노동과 회사중심의 생활을 지내는 아버지의 증가와 병행해서, 가정에 남아있는 어머니는 물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아동중심의 생활을 지내므로 아동과의 관계가 더욱 강해져 왔던 것이다. 또한 「남자는 일, 여자는 가정」이라는 성역할분업 의식과 「3세 까지는 어머니 손에서」라는 모성신화가 모자관계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다. 따라서 1980년대는 「모성(母性)」을 둘러싼 논문, 서적 등이 다량으로 간행되었다(木村, 1980; 脇田, 1985; 大日向, 1988). 역사학, 사회학, 심리학 등의 여러 영역에서 모성신화가 아버지를 재발견할 수 없었던 것 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외에도 일본과 미국에서 아버지 연구가 촉진된 사회적, 문화적 배경에는 출생율의 저하, 이혼율의 상승, 주말가족의 증가 등 가족의 인구학적 변동의 요인(Coltrane, 1995; Gottfried & Gottfried, 1994; Griswold, 1993; Hernandez, 1993), 여성의 취업증가에 따른 가족변동, 아동의 복지감을 둘러싼 정책적 논의-편모가족(모자·부자가정)에서의 양육문제-등으로부터 파생된 것이다. 특히 일본에서 최근 주목하고 있는 것은 자녀 출생율의 저하로 국가나 경제계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그것은 주로 장래의 노동력 인구의 부족과 고령자부양에 대한 부담의 증가이다. 그래서 정부, 경제계에서는 대처방안의 하나로 「아버지를 가정으로 돌아가게 하자」 혹은 「자녀양육의 남녀 공동화」 「아버지의 자녀양육을 촉진시킨다」는 제안이 아버지 연구를 촉진시킨 배경중의 하나이다. 또한 발달심리학자나 사회학자 등의 남성 연구의 분야가 과거 20년에 걸쳐서, 그 성과를 축적해왔던 것도 아버지 연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Brod & Kaufman, 1994; Kimmel,

1987; Radin, 1994). 지금이야말로 미국, 유럽에서는 아버지 연구가 사회적으로도 학문적으로도 1990년대의 토픽 주제가 되고 있다(Marsiglio, 1995). 오늘날 아버지 연구의 문화적 중심은 도구적 역할(Parsons & Bales, 1956)로서 아버지는 가계의 계승자, 가족 부양자로서의 아버지가 아닌, 새로운 아버지(new father), 근대적 아버지(modern father), 양성적 아버지(androgynous father), 특히 1980년대 이후 양육하는 아버지(nurturant father, caring father)의 명칭에 의한 새로운 문화적 이미지로 다루게 되었다(Giveans & Robinson, 1985; Pleck, 1987). 일본도 최근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학교교육의 장(場)에 적극적으로 관계하는 아버지들의 증가에 대한 기사 등이 매스컴을 통해 빈번하게 소개되고 있다. 이러한 것이 아버지 연구의 증가에도 크게 영향하고 있는 것이다.

II. 아버지 연구의 동향

아버지 연구에 관해서 나라마다 다양하기 때문에 선행연구를 체계화해서 결과를 비교하는 것은 곤란하다. 여기서 주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미국과 일본 아버지의 자녀양육참여의 실태, 참여를 촉진하는 요인, 그리고 아동 및 가족에의 영향이다.

1. 아버지에 관한 심리학적 연구 동향

1960년대까지 부모자녀관계는 모자관계에 관한 것이 주류이었다. 아버지 연구를 최초로 고찰한 Nash(1965)는 미국의 아버지 연구를 전망하고 아버지에 초점을 둔 심리학적 연구가 질·양으로 매우 부족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아동발달에 있어서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의 존재도 인식해야만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Nash의 지적으로부터 10년 후, 아버지 연구의 최대 공헌자인 Lamb(1975, 1976, 1981, 1983, 1986, 1987, 1995, 1997)의 일련의 연구, Lynn(1986)에 의한 연구가 있다. 또한 일반적인 개론 서적이 아닌 관찰적 연구에 의한 영아와 아버지간의

상호작용에 초점 둔 논문을 정리한 Pedersen(1990)의 저서도 출간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 중에서 「아버지: 아동 발달에 잊혀졌던 공헌자」(Fathers : Forgotten contributors to child development, 1975)라는 논문은 발달 연구자가 아동 발달에 미치는 아버지의 영향에 관해서 무시하고 있는 것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다. 이어 1976년 「아동발달에 있어서 아버지의 역할」의 출판을 계기로 아버지 연구는 급격히 증가했다. 종래의 모자연구에 편중해 있는 연구동향을 비판하고 아동의 심리적 발달에 미치는 어머니의 영향에 부적합할 정도로 중시되고 있는 것을 수정하고, 아버지도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밝히고 있다. 아동의 성역할, 도덕성, 지적발달에 미치는 부자관계의 영향, 부자관계의 이론적 틀, 아버지 부재가 아동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 부자관계의 문화적 특수성 및 공통성 등의 광범위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게다가 심리학적 발달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모자관계 뿐만 아니라 부자관계, 부모관계, 형제관계, 형제-부모의 관계도 서로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가족시스템의 필요성도 지적하고 있다. 1980년 전 후부터는 아버지 연구는 가족 사회학자와 발달 심리학자에게 폭넓게, 그리고 1990년대부터는 활발하게 연구되어 아버지의 존재와 그 중요성은 꽤 빠른 시기에 인식되고 있다(Lamb, 1994).

미국의 아버지에 관한 초기의 연구는 주로 부친 부재이었다(Fein, 1978). 아버지의 장기적인 부재와 아동의 성역할 유형이나 공격성과의 관련성의 검토(Feshbach, 1970; Biller, 1970), 아버지의 부재와 아동의 자기통제나 도덕성과의 관계(Hoffman & Saltzstein, 1967; Hoffman, 1970)등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부친부재의 영향에 관한 연구는 그 시기에는 꽤 의미를 갖고 있었다고 해도, 영역으로는 성역할이나 도덕성의 획득 문제에 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약 20년 전부터는 수많은 영역-아동양육과 가사에 있어서 아버지의 참여도(Coverman & Sheley, 1986; Pleck, 1977; Robinson, 1977; Russell, 1982), 아동발달에 있어서 아버지 역할의 영향(Mussen & Rutherford, 1963; Radin, 1981, 1988; Zussman, 1980),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들에 관한 연구(Belsky, 1984; Cowan & Cowan, 1987; Harris & Morgan, 1991; McBride et al., 1995; Volling & Belsky, 1991), 양육참여에 의한 아버지 자신의 변화(Barnett & Baruch, 1987; Belsky, 1984; Crouter et al., 1987; Radin, 1982; Russell, 1982) - 등, 다각적으로 연구되고 있다. 미국사회의 실정을 반영하고 있는 이혼한 아버지와 아동문제를 다룬 연구도 많다. 아버지만으로도 아동을 기르는 편부의 가정, 주말에만 부인과 아이를 만날 수 있는 주말 아버지(weekend father)가 결코 희귀한 존재가 아닌 미국에서는 아동 발달을 보장하기 위해 편부 가정에서의 아동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국가적인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다. 최근에는 재혼가정에서의 아버지 연구(Mavis & Sandra, 1997), 고등학생으로 아버지가 된 10대 아버지, 게다가 gay 아버지에 관한 연구들을 들 수 있다(Charlotte & Roymond, 1997).

한편, 일본의 경우, 아동발달에 미치는 부모의 영향에 관한 연구는 무수히 많다. 여기서 부모란 어머니이고 조사대상도 어머니이며 아버지를 직접 면접한 연구는 매우 적은 편이다. 이처럼 부모자녀 관계의 연구가 모자관계에 편중해 왔던 이유는 1) 아버지로부터 직접 자료를 얻는 것이 곤란하다(아버지에게 면접할 시간을 얻기 어려움)는 연구방법상의 어려운 점(柏木, 1978), 2) 아동발달의 초기 단계에 있어서 아버지보다도 어머니가 아동과의 상호작용이 많아 어머니가 아동에 있어서 중요한 인물이고, 아버지는 어머니를 정서적으로 지지하는 간접적인 의의밖에 갖고 있지 않다 라는 생각이 일반적이었던 것을 들 수 있다(齊藤, 1984). 그러나 아동을 둘러싼 중요한 가족 구성원인 아버지가 아동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는 연구자들의 의식이 높아지고, “자녀양육은 어머니의 일”이라는 고정적인 역할관을 다시 보는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일본에서의 본격적인 아버지 연구가 시작된 것은 Lynn, Lamb, Pedersen의 논문, 저서 등이 번역되면서 1970년대 중반 경부터 이다. 초기에는 정신분석학적, 심리학적인 연구가 많았고 아버지를 남성성, 어머니를 여성성으로한 성역할의 틀 안에서 논술한

것이 주류이었다. 미국의 연구를 소개한 古市(1978)는 1978년에 아버지 부재가 아동의 성격, 지적, 도덕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 미국 연구의 고찰을 하고 있다. 같은 해 1978년 柏木은 「모자연구」의 창간호에서 아버지가 아동의 발달에 미치는 기능, 특히 아동의 성격형성, 자아형성, 지적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 종래의 심리학적 연구를 개관하고 동시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총괄적인 전망과 함께 아버지 연구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1980년은 일본에 있어서 아버지 연구 역사상, 하나의 획을 긋는 해이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일본 교육심리학회 제 22회 총회에서 처음으로 아버지에 관한 심포지엄-「영유아의 발달과 부성의 역할」-이 개최되었다. 여기서 모자관계의 지나친 강조를 비판하고 부성연구를 함으로서 아동의 발달장애의 원인이 어머니에게만 있는 것이 아님을 지적하였고, 모자연구의 틀 안에서만 다루고 있는 발달 연구는 발달가능성을 한정시킬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 이어서 1981년에는 Lamb의 「아동발달에 관한 아버지의 역할」의 번역서가 출판되면서 일본에서도 아버지 연구가 서서히 증가해서 과거 20년에 약 100편을 넘어서고 있다. 일본의 지금까지 아버지 연구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아버지의 양육참여의 실태에 관한 것(木田, 1980; 牧野, 1987; 兒玉·水原, 1992; 木田·大谷, 1992a,b; 土谷, 1992; 加藤, 1992; 小宮山, 1992; 福丸, 1997), 자녀가 인식한 아버지상(像)에 관한 것(伊藤, 1980; 山添, 1981, 1982, 1985; 石川, 1985; 深谷·森川, 1990), 또한 주말가족에서의 아버지와 어머니, 아동과의 관계 연구(依田他, 1984; 田中佑子, 1988; Tanaka, 1991; 田中明夫, 1992), 아동의 제(諸)발달에 미치는 아버지의 영향을 다룬 것(金泉, 1985; 金泉·山口, 1988; 加藤, 1993; 鈴木등, 1988; 谷井·上地, 1994), 예를 들면, 아버지 영향이 아동의 성취동기(今泉, 1984; 今泉·山口, 1988), 성격할 의식(戸田·堅田, 1987; 加藤, 1992), 독립의식(小野寺, 1993), 가치관형성(大谷·大田, 1993), 직업선택(田中·小川, 1985), 학교 적응감(谷井·上地, 1994), 음주태도(清水, 1985), 어머니의 육아불안(中野, 1992a), 3세 영아의 발달(中

野, 1992b)에 미치는 영향 등이다. 이러한 연구들은 아버지 존재의 의의와 중요성을 논하고 있다. 그러나 아버지를 직접 대상으로 한 조사나 연구는 적고, 비교적 아동이 지각한 아버지에 관한 연구이고, 아버지가 아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도 대부분이 아동이 인지하는 아버지를 설명변수로서 사용하고 있고 직접 아버지로부터 얻은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적다. 현실의 아버지의 의식이나 행동보다도 아동이 인지하는 아버지야말로 신뢰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많은 연구가 데이터 수집을 쉽게 하기 위해 아동을 조사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연구 중에서 2, 3세 아동의 아버지에의 애착에 관한 실태를 아동과 아버지를 낯선 상황을 이용해서 실험하고 관찰을 행한 繁多(1987)의 연구나 아버지의 의식, 행동과 3세 아동의 모자분리, 발달의 제 측면과의 관련을 실제 아버지와 아동을 대응시켜 검토한 中野의 연구(中野, 1992a, 1992b)등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牧野·中野·柏木, 1996). 최근에는 아버지 자신이 부모로서의 인간적인 성장·발달에 관한 것(柏木·若松, 1994; 牧野·中原, 1990; 新谷등, 1993)등도 아버지 자신을 직접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牧野(1996)는 자녀양육에 의해 아버지 자신은 의식과 행동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가, 또한 그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등은 무엇인가에 관해 보고하고 있다. 柏木(1996)도 최근에 실시된 아버지 조사의 결과로부터 생애발달적 관점에서 아버지 자신이 어떠한 발달을 하는가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이상과 같이 아버지에 관한 심리학적 연구가 성행하게 된 배경에는 몇 가지 점을 생각할 수 있다. 다음은 그 배경에 대해서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2. 아버지의 자녀양육참여의 실태

아버지의 자녀양육참여에 관한 연구는 자녀양육의 지표로 사용되는 변수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다르다(大野·柏木, 1996). 아버지의 자녀양육참여는, 예를 들어 아동과 함께 식사, 놀이의 정도, 가사협력 등을 아버지 참여의 지표로 보고 그것을 어느 정도

하는가, 또한 그 빈도를 어머니와 비교하고 있는 연구가 많다(Baruch & Barnett, 1986; Bigner, 1977; 木田·大谷, 1992a; 兒玉·水原, 1992). 그러나 가사참여를 자녀양육참여로 포함하는 것은 가정생활에 참여한다는 의미는 있지만, 아버지와 아동과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측정하는 것으로는 적절하지 않다. 몇몇 연구(Baruch & Barnett, 1987; Coverman & Shely, 1986)는 아버지의 가사참여와 자녀양육참여는 반드시 관계하고 있지 않다고 보고 하고 있다. 여기서는 아버지와 아동과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측정 한 문헌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실제의 아동과의 상호작용에 소비하는 시간의 양은 다르다. 1994년의 국제가족의 해를 기념해서 일본의 문부성에서 행한 「가정교육에 관한 국제비교 조사」의 결과는 일본의 아버지의 현상을 생각하게 한다. 조사대상은 0세부터 12세까지의 아동과 동거하는 부모로서 일본, 한국, 태국, 미국, 영국, 스웨덴의 6개국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평일, 아동과 함께 지내는 시간의 평균은 미국의 아버지는 4.88시간, 어머니는 7.57시간이고 일본의 경우, 아버지가 3.3시간, 어머니는 7.44 시간으로 6개국 중 아버지가 아동과 함께 지내는 시간은 일본이 가장 짧았다. 그리고 미국을 비롯해 다른 나라에서는 아동의 연령이 0세부터 3세까지 어릴 때에는 아버지와 아동이 지내는 시간은 길고 아동이 커가면서 점차로 줄어드는 경향이 있지만 일본의 아버지만은 아동이 어릴 때에도 접촉시간은 짧았다. 또한 아버지와 아동과 함께 지낼 때 어떠한 것을 하고 있는가의 15항목(예: 식사를 함께 한다)으로부터 선택을 하게 한 결과, 6개국중 일본의 아버지가 접촉내용의 종류가 가장 적었고, 자녀양육을 어떻게 분담하고 있는가를 본 결과도 역시 일본의 아버지의 자녀 양육참여가 가장 적은 것이 밝혀졌다. 아버지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자녀양육은 어머니의 일이라는 의식과 현실이 남성에게 나타난 것이다. 기업전사(戰士) 라고 일컬어지는 것처럼 일본인 남성은 회사중심, 일 중심의 삶을 지탱해온 반면 여성은 가정중심, 자녀중심 삶이 된 것이다. 아버지들은 경제성장의 시대에는 자녀와

가정을 경시해왔고 회사와 일에 시간과 정열을 쏟아왔으나 요즘은 일 중심의 남성들이 가정이나 지역사회 등으로 옮겨져 오고 있는 경향이다(柏木, 1996).

미국의 경우는 Lamb, Pleck, Levine(1986)의 연구에 의하면 1970년대부터 1990년대의 아버지가 아동과 접촉하고 있는 경우는 어머니와의 접촉을 100%로 하면 평균 약 44로 보고하고 있다. 이 비율은 1970년대 보다는 조금 증가하고 있다. 아버지가 아동과 함께 보내는 시간은 아동이 어리면 어릴수록 많았다. 1993년의 McBride와 Mills의 연구에 의하면 미국의 아버지는 평균해서 평일에 1.9시간, 일요일은 6.5시간을 자녀와 접촉하고 있다. 게다가 영유아나 초등학교 저학년의 아동을 둔 아버지는 평균해서 평일에 2~2.8시간 정도 자녀와 접하고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연구자간에 현재의 아버지의 양육참가의 양이 과거 약 20년간에 정말로 증가해오고 있는가 아닌가에 대해 토론되고 있다. Robinson(1988)에 의하면 아버지의 양육참가는 1900년대부터 그다지 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아버지의 참여가 증가함과 동시에 어머니의 자녀양육시간도 증가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양육시간의 비율은 상대적으로는 거의 변하지 않고 변함없이 어머니의 부담이 크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의 불일치는 우선 조사방법상 다르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다. 말하자면 아버지의 자녀양육참여를 어머니의 자녀양육참여에 대해서 비례적 측정(proportional measure)으로 나타내는 것도 있지만 아버지의 양육참여의 시간의 양(量)만을 측정하는 절대적 측정(absolute measure)에 의한 경우도 있다. 이 논의에 관해서는 대립하는 의견이 있다는 것을 서술해두고자 한다. 아버지가 집에 있는 시간의 증가가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은 제공되지만, 자녀와 아버지가 함께 하는 시간의 의미하는 바는 다양하게 해석 될 수 있다.

3. 아버지의 양육참여를 촉진하는 요인

어떠한 이유에서 아버지가 자녀양육에 참여하는가에 관한 연구는 많다. 그 중에서 아버지의 아동기

경험, 성역할 태도, 아버지 역할지각, 결혼만족도, 그리고 직장에서의 환경 등이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우선 아버지의 아동기 경험에 관해서는 자신의 아버지가 어느 정도 자녀양육에 참여하고 있었는가의 문제이다. 여기에는 2 개의 대립되는 이론, 말하자면 보상(Compensation) 가설과 모델링(Modeling) 가설에 의해 설명되고 있다(Allasman, 1992; Lamb, 1997; Russell, 1986). 자신의 아버지가 전혀 아무 것도 하지 않았으므로 아버지 자신이 받았던 양육이 부정적인 경험이면 자신의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결핍했던 것을 보충하기 위해 그 반동으로 자신이 자녀양육에 참여하고 있다는 보상가설과, 반대로 자신의 아버지도 자녀양육에 참여하고 있었으므로 양육 방법에 만족하고 있으면 그것을 모델로 해서 자신도 아버지의 행동을 취하는 모델링 가설이 있다. 전자의 보상가설을 지지한 연구결과(DeFrain, 1979; Baruch & Barnett: 1986)도 있지만, 반대로 모델링 가설을 지지한 연구(Gerson, 1993; Haas, 1988; Simons, Whitbeck, Congert & Wu, 1991; 姜蘭惠, 1999)도 많이 있다. 이러한 것들의 관계에 있어서는 자녀의 연령이나 성별에 따라서 변하므로 단순히 아버지의 아동기 경험만으로는 알 수 없는 부분도 많이 있는 것이다. 게다가 아버지 자신의 아동기의 경험은 아버지 자신이 과거를 회상하는 것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측정이 어렵다. 회상은 현재의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고(Acklin et al., 1989), 특히 부정적인 정서상황을 많이 경험한 아버지는 과거나 현재의 부정적인 경험에 집착할 수 있다. 회상법을 사용한 조사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중단적인 연구방법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성역할 태도에 관해서는 여성의 사회진출에 자유로운 사고방식을 가진 남성 쪽이 자녀양육에 참여한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보고되고 있다(Coltrane and Ishii-kuntz, 1992; Russell, 1986). 성역할관·태도와 자녀양육참여와의 관계를 조사한 柏木·若松(1994)은 가사와 자녀양육에 참여가 높은 아버지가, 참여가 낮은 아버지 보다 성역할분업에 비판적인 「혁명적·비전통적인 성역할」관을, 또한 남성의 자녀양육과 여성의 사회진출에 대해서 긍정적인 견해

를 갖고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若松들(1991)에 의하면 여성의 사회적 활동이나 직업을 갖고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것에 관해서는 아버지들은 보다 긍정적이었으나 아버지 자신이 자녀양육이나 가사를 분담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도 소극적이라고 했다. 즉 성역할에 관한 의식은 변화해 가고 있지만 아버지 자신이 현실적으로 자녀양육의 분담이라는 의식은 쉽게 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일본 가정의 자녀양육에서의 아버지 부재의 배경요인으로 볼 수 있다. 성역할 태도가 반드시 아버지의 자녀양육에 직접적으로 관계하지 않는다는 보고도 있다(Lamb, 1981). 아버지 자녀양육참여는 자녀의 수와 연령에 따라 다르므로 자녀가 많은 가정이나 자녀의 연령이 낮은 가정에서는 자녀양육에 참여하는 시간이 많게 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러한 가정에서는 아버지가 자녀양육에 필요성이 많게 된다. 실제, 이와 같은 자녀의 연령이나 자녀수에 초점을 둔 연구는 많으며 자녀의 연령이 낮을수록, 또는 자녀의 수가 많은 가정의 아버지일수록 자녀양육 참여율이 높다(Marsiglio, 1991)는 연구 보고도 있다.

사회적 지지를 아버지 참여의 요인으로 하는 경우 그 지지는 부인으로부터 혹은 부인에게, 직장에서의 동료로부터, 그리고 친척 등이다. 부인이 직장을 갖고 있는 남편의 자녀양육참여는 전업주부의 남편보다 압도적으로 많다(Pleck, 1995). 게다가 결혼에 대한 행복도, 혹은 만족도가 높은 부부의 가정에서는 아버지의 자녀양육참여도가 높다(Pleck, 1995).

이상과 같이 주로 개인적, 심리적 관점으로부터 검토해 왔지만, 최근에는 양호성(nurturance)이라는 관점으로부터 접근할 필요성이 제기 되고 있다(Fogel & Melson, 1986; 小鳥, 1989, 1991; Pruett, 1987). 양호성이란 상대방의 건전한 발달을 촉진하기 위해 사용되는 공감성(Fogel & Melson, 1989)으로 아동과의 접촉과 교류의 요인으로 중요하다.

한편, 직장의 환경도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를 촉진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자녀양육에 관해서 유연한 자세나 이해를 해주는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아버지들은 자녀양육에 참여하고 있는 비율이 높다

(Volling & Belsky, 1991).

육아휴가에 관해서는 미국의 아버지들은 단기의 비정규적인 휴가나 유급휴가를 받는 남성은 많지만, 정식으로 육아휴가를 하는 남성은 아직 유럽 등에 비해 꽤 적다(石井, 1998; Pleck, 1995). 그 이유로서 남성이 육아휴가를 얻는 것에 대한 심리적 저항 - "하고 싶지 않다" 라는 감정, 게다가 휴가를 얻은 후 직장에서의 무엇인가의 불이익이 생길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Pleck, 1986). 미국에서의 이러한 이유는 육아 휴가법이 1991년에 성립한 일본에서는 한층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경우 비정규적인 휴가를 얻은 남성은 75%에서 91%정도이고 그 평균 기간은 5일간이다(Hyde, Essex, and Horton, 1993; Pleck, 1997).

이상의 요인은 하나 하나가 독립해서 아버지의 자녀양육참여에 영향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반대로 각각의 상관관계도 많은 것이다. 예를 들면 부인이 취업하고 있고 남편이 자녀양육에 대해 이해해 주는 회사에 근무하고 있다면 당연히 그 남성의 자녀양육 참여도는 많게 될 것이다. 이외의 요인도 많이 연구되고 있지만 여기서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많이 다루고 있는 요인만 간추려 소개해 보았다.

4. 아버지의 자녀양육참여가 아동과 가족에 미치는 영향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가 아동의 사회적, 도덕적, 성역할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많이 되어 오고 있다. 아버지 부재인 가정의 자녀가 양친이 있는 가정의 자녀에 비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발달이 늦고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출장 등으로 아버지가 자주 부재 하는 가정의 자녀, 특히 남자아이에게 남아다움이 결여되어 사회적으로 부적응하게 되며 흥미, 관심이 여성적으로 된다. 아버지의 장기적인 부재와 아동의 성역할 유형이나 공격성과의 관련성에 주목해 부친부재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특히 4-5세 이전, 영유아기에 아버지가 부재이었던 것이 공격성으로 나타나고(Feshbach, 1970), 남아에 있어서 남아다움이라는 것

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가의 이해가 곤란하고 그리고 성에 관해서 불안을 갖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Lynn, 1974; Hetherington, 1978). 지적발달도 늦다는 연구보고도 있다. 이 연구결과로부터 아버지가 자녀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인격적 발달이나 사회적 적응, 게다가 지적발달을 촉진시키는 역할 등이 강조되었다. 아버지의 어떠한 활동-자녀에의, 어머니에의, 가족전체에의-이 긍정적인 영향을 갖고 있는 것일까? 아버지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은 어머니와 어떻게 다른 것인가?에 대해 명확해야 한다. 게다가, 그러한 것은 정말로 아버지에게 고유한 것이고, 다른 누구에게도 대체 불가능한 것인가, 질문해 보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이와 같은 의문에 대답하려는 부자관계의 많은 연구가 미국을 중심으로 행해졌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점이 어머니와 비교했을 때 아버지의 역할 중에 일반적인 특징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1) 어머니보다 빈도가 낮다 (2) 대화가 적다 (3) 신체적인 놀이가 많다(4) 감정표현이 적다(긍정적인 감정이나 부정적인 감정) (5) 남아에 대해서 활동이 많다(6) 직접적으로 권위적인 양육태도를 한다 이러한 특징은 일본의 경우도 거의 마찬가지이다. 예를 들면 자녀가 말하는 것을 듣지 않을 때 어머니는 이것저것 이유를 들어서 자녀에게 간접적으로 설득을 하는 것에 비해서, 아버지는 '안돼' 라는 식의 직접적인 명령이나 지시를 하는 것이 많다. 아버지가 자녀와의 관계나 교육의 방식이 어머니와는 꽤 다른것이 아버지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 중에 어떠한 점이 자녀의 발달을 촉진시키는 것일까. 자녀의 발달에 아버지의 공헌이라는 것은 무엇이겠는가. 우선 들 수 있는 것은 (3)의 신체적 놀이의 역할이다. 이것이 광의의 지적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아버지의 자녀양육참여가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분야에서 Lamb(1986)의 연구가 유명하다. 그의 연구는 미국의 아버지 연구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Lamb의 연구에 의하면 아버지의 자녀양육참여의 시간적인 「양」은, 영유아를 가진 아버지의 애착심에는 그다지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양」보다도 자

녀양육참여의 「내용」이나 「질」이 아동발달에 영향이 크다는 것을 밝혀냈다. 그러나 다른 Lamb의 연구에 의하면 유아기(3-4세)의 아동에 있어서 자녀양육을 100%로 했을 때 그중 40%이상을 하고 있는 아버지의 아동은 아버지와 그다지 교류가 없는 아동에 비해서 변별능력이나 상대의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이 높고, 성 차별적인 사고방식도 적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Lamb의 연구결과는 1994년의 Radin의 연구에서도 실증되고 있다.

1980년대의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적극적인 양육참여에 초점을 둔 연구가 많다. 적극적인 양육참여란 아버지 자신이 적극적으로 자녀를 보살피고 그 행동에 만족하고, 스트레스도 낮은 것이다. Gottfried(1988)의 연구에 의하면 적극적인 양육참여를 하고 있는 아버지를 가진 6-7세 아동은 학교에서의 성적이나 사회적인 성숙도가 높다. 또한 똑같은 아버지를 가진 청소년의 자녀들에 있어서는 자기 억제력이나 자신에의 자신감 향상을 보이고 생활기술의 향상, 사회성의 증가 등의 영향을 보였다(Amato, 1987; 松田, 1989).

1992년 Williams의 연구에서는 아동이 3~9세 경 아버지와 적극적인 접촉을 하고 있었던 아동은 사춘기에 있어서, 성 차별적인 생각이 적은 것으로 발표되고 있다.

1990년대 연구에서는 NSFH(미국의 전국 가족과 가정조사)의 데이터를 사용한 것이 많은데 그 중에서 Mosley와 Thompson(1995)의 연구는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아동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에 주목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양친과 함께 살고 있는 5세부터 18세까지의 아동이 있는 가정에서는 아버지에 의한 적극적인 자녀와의 접촉이 아동의 사회성의 증가와 책임감의 향상, 게다가 아버지와 적극적인 교류가 있는 남아는 학교에서 품행에 문제가 없고 여아는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밝은 성격의 아동이 많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尾形(1995)은 아버지의 자녀양육참여를 6개의 영역으로 나누어서 유아의 사회생활 능력을 설명하고 있다. 그 결과, 아버지의 「신체적인 돌봄」은 유아의 사회생활 능력에 부정적인 효과를, 아버지의 「육아방침」은 사회 생활

능력을 촉진시킨다고 보고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아버지의 자녀양육참여가 아동발달에 미치는 직접 효과를 다룬 연구는 거의 볼 수 없다. 아버지의 자녀양육참여가 어머니의 자녀양육 불안을 감소시킨다는 牧野·中西(1985)의 연구, 아버지의 유연성 있는 양육행동이 어머니의 엄격한 양육행동을 보완해서 간접적으로 아동의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土谷(1994)의 연구 등은 아버지의 간접적인 효과를 다루고 있다.

Almeida 와 Galambos(1991)의 단 기간의 중단연구의 데이터에서는 역시 아버지의 자녀양육참여가 많을수록 아버지가 아동에 대한 이해력과 아동이 아버지에게 대한 이해력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들은 데이터 수집이나 분석이 다르기 때문에 직접 비교할 수 없다. 그러나 아버지 참여가 아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는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고 있는 점에서는 비슷하다.

III. 아버지 연구의 문제의식 및 과제

미국과 일본의 아버지 연구 동향을 고찰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의식과 연구과제를 제안 하고자 한다. 미국과 일본의 아버지 연구의 대부분은 아버지 그 자체의 연구를 지향하기보다는 아동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요인으로서 아버지를 다루고 있다. 아버지로서의 발달의 문제는 현재 거의 다루고 있지 않다. 아동과 마찬가지로 아버지도 생애에 걸쳐서 발달하기 때문에(柏木, 1993, 1995b; Parke, 1988, 1990, 1995) 아동의 발달과 관련해서 아버지를 연구하는 것과 동시에 아버지 자신의 발달적 변화, 아동과의 상호작용의 변화에 관한 연구가 앞으로의 과제로 남아 있음을 지적하고 싶다.

또한 양국 모두 아버지의 자녀양육에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려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한 연구로부터 지적되고 있는 요인은 실제로 다양해서 아버지의 자녀양육에 미치는 영향에 중요한 요인이라는 실증적인 검증을 제공하려는 점에서 의의는 크다. 그러나 각각의 규정 요인을 어떠한 문맥에 기초해서 어

떠한 관점으로부터 추출해 왔는가는 명확하지 않은 것이 많다. 단순히 새로운 변수를 증가시켜 데이터를 분석하는 말하자면 Specification Search로 끝나버려, 이론의 발달은 제자리 상태에 머물러 있다(Ishii-Kuntz, 1998).

앞으로 아버지 연구는 이론적 체계의 발전과 동시에 실증적 연구를 함께 해나가야 하는 것이 현재의 연구자들이 해야 할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이론상의 논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단계에서 미국의 아버지 연구는 다양한 가족-편부, gay 아버지-에 다시 대응해 가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일본도 마찬가지여서 최근에 늘어나는 이혼가정과 가족의 개인화(個人化)과정이 예측되는 것이어서 다양한 가족형태의 아버지 연구가 구체화되어야 한다. 끝으로 일본은 「남자는 일, 여자는 가정」이라는 성역할 분업의식과 「3세 까지는 어머니의 손으로 자녀양육」이라는 모성신화로 인해 아버지를 재발견할 수 없었다. 따라서 영유아와 아버지와의 접촉에 관한 연구는 미국 보다 적은 편이다. 모성신화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아버지와 아동과의 상호작용의 중요함을 밝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즉 영유아기에 아버지는 아동에게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 그것은 어머니와 다른 동기가 있어야만 하는가. 어떠한 동기가 아동의 어떠한 발달을 촉진시키는데 대해서 더 많은 실증적 연구를 해야 하는 것이 앞으로 남겨져 있는 과제라고 보여진다.

■ 참고문헌

- 1) Acklin, M.W., Sauer, A., Alexander, G., & Dugoni, B. (1989). Predicting depression using Earlier childhood memories,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53, 51-59.
- 2) Amato, P. R.M., (1987). "Family Processes in One-Parent, Stepparent, and Intafct Families: The Child's Point of View,"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9, 327-337.
- 3) Almeida, D. M. and N. L. Galambos, (1991). "Examining Father Involvement and the Quality of Father-Adolescent Relations," *Journal of Research and Adolescence*, 1, 155-172.
- 4) Allsman, C.L. (1992). Father participation in child care: An examination of mother variables, University of Miami degree of paper.
- 5) Barnett, R., & Baruch, G. (1986). Father's participation in family work and children's sex role attitudes, *Child Development*, 57, 1211-1223.
- 6) Barnett, R., & Baruch, G. (1987). Determinants of father's participation in family work,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9, 29-40.
- 7) Belsky, J. (1984).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A process model, *Child Development*, 55, 83-96.
- 8) Biller, H.B. (1971). *Father, Child, and sex role*. Lexington, MS: Heath.
- 9) Bigner, J.J. (1977). Attitudes toward fathering and father-child activity,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6:98-106.
- 10) Charlotte J.P & Raymond W.C. (1997). *Gay Fathers*. In Lamb, M.E.(Eds). *The Role of the Father in child development*, New York: Wiley, 245-260.
- 11) Coltrane, S. and M. Ishii-Kuntz, (1992). "Men's Housework: A Life Course Perspectiv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4, 43-57.
- 12) Coverman, S. & Sheley, J.F. (1986). Change in men's housework and child-time, 1965-1975.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8, 413-422.
- 13) Cowan, C.P., & Cowan, P.A. (1987). Mens involvement in parenthood. In P.W,Berman & F.A Pedersen(Eds.), *Mens transition to parenthood*, pp145-174. Hillsdale, W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14) DeFrain, J., (1979). "Androgynous Parents Tell Who They Are and What They Need," *The Family Coordinator*, 28, 237-243.
- 15) Ferree, M., (1991). "The Gender Division of Labor in Two-Earner Marriages: Dimensions of Variability and Change," *Journal of Family Issues*,

- 12, 158-180.
- 16) Gerson, K., (1993). *No Man's Land: Men's changing Commitments to Family and Work*, Basic Books.
- 17) Gottfried, A. E., Bathurst, K. & Gottfried, A. W. (1994). Role of maternal and dual-earner employment status in children's development. In A. E. Gottfried & A. W. Gottfried(Eds.), *Redefining families: Implications for children's development* (pp55-97). New York: Plenum.
- 18) Gottfried, A. E., Gottfried, A. W., & Bathurst, K. (1988). Maternal employment, family environment, and children's development: Infancy through the school years. In A. E. Gottfried & A. W. Gottfried(Eds.), *Maternal employment and children's development: Longitudinal research*(pp. 11-58). New York: Plenum.
- 19) Griswold, R. L. (1993). *Fatherhood in America*. New York: Basic Books.
- 20) Haas, L., (1988). *Understanding Fathers' Participation in Child Care: A Social Constructionist Perspective*, Paper presented at the National Council on Family Relations meetings, Philadelphia.
- 21) Herman, M.A., & McHale, S. M. (1993). Coping with parental negativity: Links with parental warmth and child adjustment.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14, 121-130.
- 22) Hyde, J. S., Essex, M. J. and F. Horton, (1993). "Fathers and Parental Leave: Attitudes and Experiences," *Journal of Family Issues*, 14, 619-641.
- 23) Ininger-Talman, M. Pasley, K. and C. Buehler, (1995). "Developing a Middle-Range Theory of Father Involvement Postdivorce," In W. Marsiglio (ed.), Sage, 57-77.
- 24) Ishii-Kuntz, M. and S. Coltrane, (1992a). "Predicting the Sharing of Household Labor: Are Parenting and Housework Distinct?" *Sociological Perspectives*, 35, 629-647.
- 25) Ishii-Kuntz, M. (1992). Japanese fathers work demands and family roles. In Hood, J.c.(Ed), *Men, Work and Family* sage public 45-67.
- 26) Lamb, M.E. (1981). *The role of the father in child development*. New York: John Wiley & Son.
- 27) Lamb, M.E., Pleck, J.H., & Levine, J.A. (1986). Effects of parental involvement as fathers and mothers. In Lewis, R.A., Sussman, M.B.(Eds.), *Marriage and Family Review* 9. New York: The Haworth Press.
- 28) Lamb, M.E. (1986). *The Father's Role: Applied Perspectives*, New York: Wiley.
- 29) Lamb, M.E. (1994). Parental influences on child development. Paper presented at the conference on changing fatherhood. University of Tilburg, the Netherlands.
- 30) Lamb, M.E. (1997). *The Role of the Father in Child Development*, New York: Wiley.
- 31) LaRossa, R. (1988). Fatherhood and social change. *Family Relations*, 34:451-457.
- 32) Lynn, D.B. (1974). *The Father: His Role in development*. Monterey, California: Brooks Cole.
- 33) Marsiglio, I.W. 1991 Parental engagement activities with minor childre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4, p73-86.
- 34) McKee, L. (1981). Fathers' participation in infant care: A critique. In L. McKee & M. O'Brien (Eds.). *The father figure*. London: Tavistock.
- 35) Mussen, P. H., & Rutherford, E. (1963). Parent-child relations and parental personality in relation to young children's sex-role preferences. *Child Development*, 34, 589-607.
- 36) Nash, I. (1965). The father in Contemporary culture and current psychological literature. *Child development*, 36, 261-297.
- 37) Parke, R.D (1995). *The father: Handbook of parenting* vol.3. Lawrence Erlbaum Associates, New Jersey.

- 38) Parke, R. D. and B. Tinsley, (1984). "Fatherhood: Historical and Contemporary Perspectives," in McCloskey, K. A. and H. W. Reese (eds.), *Life-Span Developmental Psychology: Historical and Generational Effects*, Academic Press, 429-457.
- 39) Peterson, R. R. and K. Gerson, (1992). "Determinants of Responsibility for Child Care Arrangements among Dual-Earner Coupl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4, 527-536.
- 40) Pleck, J.P.(1977). The work-family role system, *Social Problems* 24:417-427.
- 41) Pleck, J.H.(1995). In Press, Paternal Involvement: Levels, Sources, and Consequences, In Lamb, M.E. (ed.), *The role of the father in child development*, Erlbaum.
- 42) Pruett, K. D. (1987). Shining a new light on the fatherhood role [Review of *The nurturing father*]. Yale, 46.
- 43) Radin, N. (1981). The role of the father in cognitive, academic, and intellectual development. In M.E.Lamb(Ed.), *The role of the father in child development*.
- 44) Radin, N.(1982). Primary caregiver and role sharing father.In M.E.Lamb(Ed.), *Nontraditional family* Wiley, pp379-428.
- 45) Radin, N.(1988). Primary caregiving fathers of long duration. In P. Bronstein & C.P. Crown(Eds.), *Fatherhood Today*, New York: Wiley, 127-143.
- 46) Robinson, J.P. (1977). *How Americans use time* New York: Praeger.
- 47) Robinson, J.P. (1988). Whos doing the housework? *American Demographics*, 10, 2-28.
- 48) Ross, C. E., Mirowsky, J. and R. Huber, (1983). "Dividing Work, Sharing Work, and In-Between: Marriage Patterns and Depress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8, 809-823.
- 49) Russell, G. (1982). Shared caregiving families: An Australian Study. In M.E. Lamb(ed.), *Non-traditional Families: Parenting and Child Development* Hillsdale, NJ: Erlbaum,139-172.
- 50) Russell, G. (1986). Primary caretaking and role-sharing fathers In M.E.Lamb(Ed.), *Nontraditional families* New York: Wiley, 29-57.
- 51) Simons, R.L., Whitbeck, L.B., Conger, R.D., Wuchyi-In. (1991). Intergenerational Transition of Harsh Parenting. *Developmental Psychology*, 27, 159-171.
- 52) Thompson, L. and A. Walker, (1989). "Gender in Families: Women and Men in Marriage, Work, and Parenthood,"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1, 845-872.
- 53) Volling, B., J. Belskey. (1991). "Multiple Determinants of Father Involvement During Infancy in Dual-Earner and Single-Earner Famili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3, 461-474.
- 54) Zussman (1980). situational determinants of parental behavior: Effects of competing cognitive activity. *Child Development*, 51, 792-800.
- 55) 深谷和子・森川浩珠 (1990). 父親像の因子分析的研究, *日本家政學會誌*, 41(6), 487-495.
- 56) 藤永保 (1996). 日韓乳幼児における母子相互作用の比較文化研究, 平成5~7年度科學研究費(國際學術研究)研究結果報告書
- 57) 福丸由佳 (1997). 乳幼児期の子どもを持つ親における仕事観・子ども観. *お茶の水女子大學大學院修士論文*.
- 58) 今泉信人 (1976). 現代の母親の兒童觀・育児の實態に関する研究(II) - 母親の兒童觀の年齢差の検討. *福岡 教育大學紀要*, 25, 227-237.
- 59) 今泉信人・龍祐吉 (1985). 子どもの達成動機に関する父親要因と母親要因に関する研究. *廣島大學教育學部紀要*, 第1部 第33號, 159-169.
- 60) 今泉信人・山口修司 1988 子どもの達成動機と父親, 母親との日常的相互交渉との関連の検討. *廣島大學教育學部紀要*, 第1部 第37號, 181-190.
- 61) 姜蘭惠 (1997). 父親の養育行動と子どもの性役割

- 特性との日韓比較研究. 發達研究, 12, 79-87.
- 62) 石川英夫 (1985). 父子關係に關する心理學的研究 (2): 大學生の父親像について. 東京經濟大學人文自然科學論集, 39-92.
- 63) 伊藤友宣 (1980). 子どもにとっての父親像とは. 青少年問題, 27(12), 13-19.
- 64) 柏木恵子(1978). 子どもの發達における父親の役割: 問題點と心理學的研究. 母子研究, No.1, 153-165.
- 65) 柏木恵子(編著) (1993). 父親の發達心理學. 川島書店.
- 66) 柏木恵子・若松素子 (1994). 「親となる」ことによる人格發達. 發達心理學研究, 5(1), 72-83.
- 67) 柏木恵子・高橋恵子 (1995). 發達心理學とフェミニズム. ミネルヴァ書房
- 68) 柏木恵子・古澤頼雄 (1996). 親意識・配偶者意識に關する日韓比較-母親役割と主婦役割の認知を中心に-日韓乳幼児における母子相互作用の比較文化研究. 木村桂文社
- 69) 柏木恵子 (1998). 社會・家族・個人の發達社會變動と家族發達-子どもの價值・親の價值-柏木恵子編結婚・家族の心理學. ミネルヴァ書房
- 70) 金子俊子 (1989). 青年期女子の親子・友人關係における心理的距離の研究. 青年心理學研究, 3, 10-19.
- 71) 加藤邦子 (1992). 父親の性役割意識と父子かかわりの關連について. 家庭教育研究所紀要, 14, 117-123.
- 72) 加藤邦子 (1993). 兩親の養育態度と子どもの發達. 家庭教育研究所紀要, 15, 170-176.
- 73) 木田淳子 (1980). 共働き家庭における父親の育児行動. 滋賀大學教育學部紀要, 30, 116-135.
- 74) 木田淳子・大谷直美 (1992a). 父親の子育て參與に關する家族關係の考察(第1報)職業的要因および家族靜態-相互作用的要因が及ぼす影響. 日本家庭學會誌, 43(8), 721-733.
- 75) 木田淳子・大谷直美 (1992b). 父親の子育て參與に關する家族關係の考察(第2報)父子の心理的紐帶に及ぼす影響. 日本家庭學會誌, 43(12), 1185-1194.
- 76) 小野寺敦子・柏木恵子 (1997). 親意識の形成過程に關する縦斷研究. 發達研究, 12, 59-78
- 77) 兒玉典子・水原敏子 (1992). 幼児期と兒童期の子どもに對する父親と母親の養育行動. 滋賀大學教育學部紀要, 42, 47-62.
- 78) 小宮山要 (1992). 幼児の養育における父親の役割に關する研究. 櫻美林短大紀要, 28, 55-66.
- 79) 牧野カツコ (1987). 働く父親の家庭生活と意識. 家庭教育研究所紀要, 8號, 42-51.
- 80) 牧野カツコ・中野由美子・柏木恵子 (1996). 子どもの發達と父親の役割. ミネルヴァ書房
- 81) 牧野暢男・中原由理子 (1990). 子育てに伴う意識の形成と變容. 家庭教育研究所紀要, 12, 11-19.
- 82) 新谷(中原)由里子・村松幹子・牧野暢男 (1993). 親の變化とその規定因に關する一研究. 家庭教育研究所紀要, 15, 129-140.
- 83) 土谷みち子 (1992). 父親の生活實態と父子かかわり. 家庭教育研究所紀要, 14, 108-116.
- 84) 若松素子・柏木恵子 (1994). 「親となること」による發達-職業と學歷はどう關係しているのか-. 發達研究, 10, 83-98.
- 85) 依田明・鈴木乙史・清水弘司 (1984). 父親不在家庭の家族關係. 安田生命社會事業團研究助成論文集, 20, 157-164
- 86) 吉村理穂 (1994). 幼児をもつ母親の自己効力感-ソーシャルサポートと子どもの氣質の影響の検討. お茶の水女子大學大學院平成5年度修士論文
- 87) 斧出節子 (1993). 男性にとっての子育ての意味. 家族關係學, 12, 1-23.
- 88) 大野祥子・柏木恵子 (1996). 父親: 兒童心理學の進歩. 金子書房
- 89) 小野寺敦子 (1995). 父性意識の成立過程に關する研究-父親となる心の準備性に焦點をあてて-. 家庭教育研究所紀要, 17, 95-105.
- 90) 小高恵 (1993). 親子關係の年代的推移 25年前と現在の親子關係についての正準判別構造と平均・標準偏差の比較. 教育心理學研究, 41(2).